# 漢代 畵像石의 宴飮과 飮酒禮

- 禮制의 지방정착화와 관련한 試論 -

이수덕*

〈차 례〉

1. 머리말
2. 宴飮圖의 구도
3. 宴飮과 飮酒禮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漢代의 화상석 가운데 연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먼저『儀禮』등 禮書에서 음주의 의례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출토유물과 비교하여 戰國시대에는 禮書의 내용이 그대로 투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前漢 시대의 화상석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부분도 존재하였다. 특히 예제에 맞는 모습은 전한보다 후한 시대에서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지위와 고하에 따른 자리 배열과 기물의 배치를 통해 儒家的 禮制의 편린을 확인하였다. 특히 射禮가 강학과 더불어 한 화면 속에 재현되었으며, 이는 지방 관청 단계에서 유가적 의례가 군사적 성격에도

* 동아대학교 사학과

투영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이해하였다. 後漢의 화상석은 지역별로는 여러 곳에서 출토된 것으로 각 지역에서 유사한 구도의 재현을 통해 禮制가 後漢 이후 지방으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화상석, 음주례, 연음도, 유가적 의례, 사례

## 1. 머리말

漢代 화상석에는 당시 사람들의 실제 생활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다.[1] 물론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과, 생과 사가 연결되어 나오는 자료들도 많은 편이다.[2] 그 주제는 주로 전쟁, 車馬, 娛樂, 宴飮, 제철, 제염 및 역사적인 고사나 신화적인 내용에다 瑞祥에 관한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그 특성이 다르지만[3] 당시 사람들의 실제 생활모습이나 그들의 세계관, 사후관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화상석을 연구의 자료로 이용하거나 이를 전론하기도 하였으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4] 필자도 술에 관한 일련의 연

---

1) 漢初 이후로 차츰 목곽에서 횡혈식 묘실로 변화하면서 화상석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짙은 신화적 세계가 사라지고 실제 저택을 그대로 지하에 재현한 묘실이 등장한다고 한다. 渡部武, 『中國の古代畵像が語る』(平凡社, 1991, p.12) 참조.

2)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마이클 로이(이성규 역), 『古代中國人의 生死觀』(지식산업사, 1987) 참조.

3) 信立祥, 「漢代畵像石的分區與分期研究」(兪偉超 主編, 『考古類型的理論與實踐』, 文物出版社, 1989) 참조.

4) 기존의 화상석 연구가 많아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연구사 정리로 許明華, 「漢代 畵像石에 반영된 祭祀藝術樣式」(『中國史研究』 65, 2010), pp.1-3 참조.

구를 진행하면서 기존 문헌 자료의 부족을 채우고자 당시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파악하는 자료로 화상석을 많이 인용하였다.[5] 이는 화상 자료가 실제 생활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이다.[6]

漢代 화상석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으며, 연구는 다양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개 화상석의 주제에 관한 분류에서 출발하며 당시의 관념과 사회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었다.[7] 또한 특정한 주제를 여러 화상석에서 뽑아내어 연구하기도 한다. 武梁祠 같이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화상석이 없지는 않았지만,[8] 특정한 화상석이나 특정 주제에 국한하여 이를 천착한 연구는 많지는 않은 편이다. 그런 점에서 '射爵射侯圖'만을 따로 떼어내어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나간 논문은 연구의 방향성과 주제를 제시한 점에서 도움이 된다.[9] 또한 '橋上交戰圖'를 분석하여 화상석 화제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이해를 시도한 논문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10] 복합적인 화제와 화면의 구성 속에서 상관관계가 없는 화면들도 서로 일관된 논리로 설명가능하다는 연구의 시각은 본고에도 영향을 주었다.

필자는 기존의 연구에서 술의 의례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하

---

5) 졸고, 「漢代 酒의 實像: 술의 이용과 양조」(『中國史硏究』 34, 2005)에서 당시 酒家와 酒市를 이해하는 중심 사료로 화상석을 이용하였다.

6) 邢義田, 「漢代壁畵的發展和壁畵墓」(『歷史語言硏究所集刊』 57-1, 1986)에서도 목곽에서 묘실로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7) 화상석의 주제에 대한 분류로는 李發林, 『漢畵考釋和硏究』(『中國文聯出版社』, 2000), 참조.

8) W. Fairbank, "The Offering shrines of Wu Liang Tz'u",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6, 1941; 金元龍, 「武梁畵像石과 檀君神話에 대한 再考」(『미술사학연구』 146, 1980); 武鴻, 『武梁祠』(三聯書店, 2006) 등 참조.

9) 邢義田, 「漢代畵像石中的'射爵射侯圖'」, 『歷史語言硏究所集刊』 71-1, 2000. 富貴의 추구에서 활 쏘는 모습을 이해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 漢代 화상석에는 일정한 구도와 격식이 있으며, 표제가 있을 경우도 있다고 한다.

10) 金秉駿, 「漢代 畵像石의 '橋上交戰圖' 분석 - 畵題간의 상호 유기적 이해를 위한 시론」, 『강좌미술사』 26, 2006.

면서도 그 의례가 실제로 행해지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술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해 갈 때 민간사회에서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만드는 권리를 획득해 가면서 나타나는 의례적인 측면에서의 변화[11]를 추적해갈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漢代의 유학이 국교화되고 지방에서도 관학이 설립되면서 차츰 기층 사회로 유교 이념이 자리잡아갔을 것이라 가정하고, 특히 飮酒의 의례에 관해서 화상석 자료에서 관련 모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존에 鄕飮酒禮의 기원과 형성에 관한 일고에 이은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작업이었다. 나아가 漢代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보게 하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기존에 깊이 있게 분석되지 않은 연음도에 주목하고 그 연음 장면 속에 보이는 의례적 성격이 실제로 유가적인 의례가 투영된 것인지에 아닌지에 관한 논의를 펼쳐보고자 한다. 연음 장면 속에 나오는 복식, 신분 관계, 연희 및 그 속의 놀이에 주목하여, 射禮와 鄕飮酒禮에 관련된 화상 자료들을 분석할 것이며 특정하게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12] 또한 실제 禮書의 내용이 어떻게 화상석 속에 투영되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각각의 논의에 필요한 화상석들을 주로 지방 별로 추출하여 이용하면서 기존의 문자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필자의 문제의식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고자 한다.

---

11) 졸고, 「牛酒賜與를 통해 본 漢代의 國家와 社會」(『中國史硏究』 13, 2001), 참조.

12) 邢義田, 「漢代畵像石中的'射爵射侯圖'」에서 漢代 화상석에는 일정한 구도와 격식이 있으며, 표제가 있을 경우도 있다고 한다.

## 2. 宴飮圖의 구도

『儀禮』에는 鄕飮酒禮, 鄕射禮, 射禮가 나와 있고 그 속의 의례의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13]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의례들도 술의 의례가 반드시 포함되며 어떤 경우에는 이를 통칭하여 鄕飮酒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는 기원과 그 성격이 다른 의례들이 유가적 색채로 정리되면서 나온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4] 그 중에서 특히 술잔을 손님에게 올리고 다시 주인에게 돌리고서 마시는 과정과, 장유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잔을 돌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존장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핵심적인 의례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옷의 모양이나 관의 모습, 자리의 배치가 어느 정도 나이와 지위에 따라 나누어지는지 또 술잔이나 기물의 배치가 禮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과정이나 모습들이 포함될 때 禮書의 내용이 실제 생활 속에 투영되어 있음을 확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漢代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작업에 선행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들 의례들이 실제로 漢代 이전에 존재했는지 과연 의식에 관한 이념적 입장만이 예서 속에 투영되기만 한 것인지, 실제로 거행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儀禮』의 士冠

13) 「鄕飮酒」는 기층 행정조직을 위해 현인을 존중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음주 의식, 「鄕射禮」는 제후와 대부가 활쏘기 시합에 참가할 적의 의식 순서, 「燕禮」는 제후와 대부의 연회에 대한 예, 「大射禮」는 군주가 주지하는 활쏘기 시합의 예절이라 한다. 柳肅, 『禮의 정신』(洪熹 역, 동문선, 1994), p.23 참조.

14) 졸고, 「鄕飮酒禮의 起源과 形成」(『대구사학』 84, 2006). 『詩經』과 『左傳』의 饗禮에는 射禮, 燕禮, 饗禮 등이 혼합되어 있다가 차츰 분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戰國 초기의 자료에서 禮書의 내용이 투영되는 의례도 확인하였다.

禮에는 술의 의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내용이 나와 있다.

> 술항아리 尊을 房과 室의 입구 사이에 둔다. 두 개의 흙 항아리 甕과, 그것을 두는 禁이 놓여진다. 두 항아리 서쪽에는 玄酒가 놓이고, 각각 항아리의 위에는 손잡이를 남으로 하고 국자를 둔다.15)

이와 유사한 기록이 『禮記』에도 나와 있는데,16) 예서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두 개의 술 항아리와 국자가 같은 방향인 것17) 그리고 그것을 두는 '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를 다음에 나오는 청동기 자료와 비교한다면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아래에서 北京古宮博物院 所藏 靑銅壺의 문양을 살펴보자.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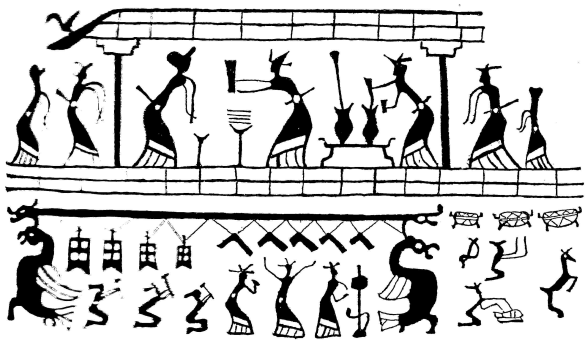

그림 1

15) 『儀禮』(이하 십삼경주소본), 卷 3, 士冠禮, p.28, "尊于房戶之間, 兩甒有禁, 玄酒在西, 加勺南枋".

16) 『禮記』 卷 61, p.1004, 鄕飮酒義, "鄕人士君子, 尊於房中之間, 賓主共之也, 尊有玄酒, 貴其質也".

17) 비슷한 내용이 『儀禮』, 권 8, 鄕飮酒禮, p.81, "尊兩壺于房戶之間, ....., 加二勺于兩壺"에 나온다.

18) 小南一郎, 「飮酒禮と棵禮」, 『中國禮制と禮學』(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硏究報告, 朋友書店, 2001), p.90.

건물 아래 사람들이 평면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네 사람은 안에서 술에 관한 의례를 거행하고 있으며, 네 사람은 밖에서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두 개의 흙 항아리와 국자의 존재, 그리고 그것을 받치고 있는 것은『儀禮』속의 '禁'이다. 또한『儀禮』에는 堂에서 樂工이 노래하고 堂下에서 연주하는 내용도 나오는데,[19] 화면은 대체적으로 이와 부합하는 모습이다. 다만 堂에서의 악공의 존재와, 당상의 여러 인물들이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그 장유적 위치 배열이 어떠한지 분명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고하에 따른 공손한 자세로 보아 위치상의 배열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예서 속의 내용과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왼편 처마 위에 새가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당 안에서 긴 작대기 같은 것이 놓여 있고, 또 인물들은 긴 옷을 입고 있으며 허리에 칼이나 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청동기는 전국 시대 초기의 것으로 보이는데[20] 이와 유사한 이미지도 다른 전국 시대 청동기에서 나온다. 四川省 百花潭 十號墓에서 출토된 전국 청동기에도 射禮와 음악 연주 그리고 飮酒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21], 上海博物館 소장된 燕射畵象橢杯에도 두 개의 건축물 속에서 酒會를 거행하면서 習射와 무용 그리고 반주와 음악이 표현되어 있고 또한 두 개의 항아리를 마주한 사람들이 공손하게 술잔을 나누는 모습도 나타난다.[22] 따라서 戰國 시대 청동

19) 이것이 射禮였다면『詩經』召南의 騶虞가 연주되었을 것인데(楊寬,「'射禮'新探」(『古史新探』, 中華書局, 1965 참조), 士의 冠禮이므로 이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饗燕禮에서의 음악에 대해서는 崔振默,「중국 고대 樂律의 운용과 禮制」(『東洋史學研究』89, 2004), pp.29-34 참조.

20) 小南一郎, 앞의 논문, p.90 참조. 이 화상석의 모본은 원래 楊宗榮,『戰國繪畫資料』(中國古典出版社, 1994), 도 20 참조에서 따옴.

21)「成都白花潭銅壺宴樂圖」,『文物』, 1976-3 도판 2 참조. 楊寬,『戰國史』(上海人民出版社, 1991), 도판 12 참조.

22) 楊寬, 앞의 책, 도판 11 참조.

기와 『儀禮』의 내용은 서로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3]

그렇다면 실제로 술을 마시면서 『儀禮』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것은 용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도상 자료와 『儀禮』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관념의 일치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의례들을 예서의 형식과 내용대로 거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시기나 중요한 의례에 국한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儀禮』 상의 예제가 유가적 예의의 하나로 어느 정도 인식되고 또 채택되는지의 여부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아래 전한 시기의 화상석을 통해서 위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서 술의 의례가 연음도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모색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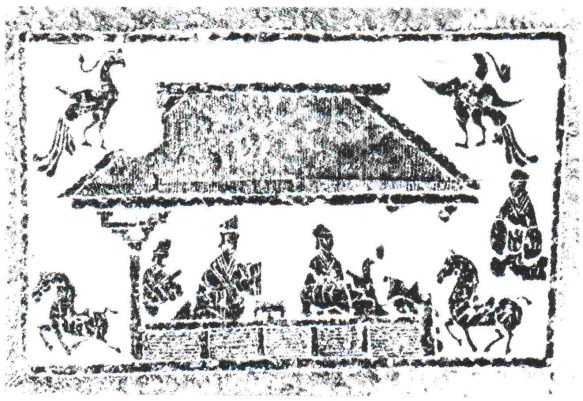

그림 2

23) 禮書의 규정대로 음주례를 행한 이유는 특정 학파의 영향이라고 보다는 술의 의례가 가지는 제사적 혹은 주술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술의 주술적 성격에 대해서는 丸龜金作, 「漢代の酒專賣に就て」(『歷史學研究』 121, 1944), p.52 참조.

이 화상석은 兩城鄕 출토된 것이다. 많지 않은 前漢 화상석이다.[24] 도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堂의 구조를 한 건축물 안에 유학자들이 착용하는 進賢冠을 한 사람이 왼편에서 홀 같은 것을 들고 공손히 앉아 있고[25], 중앙에 두 사람이 긴 옷을 입고 술동이 같은 것을 하나 앞에 두고 있으며 오른편에 작은 아이나 연희를 하는 두 사람이 나와 있다. 앞서 본 전국 청동기와는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만 堂 구조와 홀의 존재와 사람들 사이에 둔 술항아리 그리고 긴 옷 등은 앞서 본 그림과 유사하다. 또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건 물 위에 작은 새를 올려 두던 것인데 건물 위의 한쪽에 朱雀이나 鳳凰으로 보이는 새가 각각 나와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만큼은 앞과 거의 부합하는 것인데, 건물 위에 주작이나 봉황을 두는 화상석은 후한에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26] 물론 이 酒會의 성격은 앞서 본 射禮나 冠禮 혹은 전국 청동기의 중요한 의례와는 달라 보인다. 아마 家內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교의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지만 유가들[27]이나 지식인들이 착용하는 進賢冠을 확인할 수 있고, 새의 모습이 일층 진화되어 주작이나 봉황으로 지붕을 장식한 점도 확인할 수

---

24) 微山縣文物管理所, 「山東微山縣西漢畵像石墓」, 『文物』 2000-10. 대략 前漢 중기 이후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화상석들은 그 내용이 대개 간단하고 日光鏡 형태의 銅鏡이 주로 나타난다. 後漢 시대에는 주로 화상석들이 대부분 얕은 浮彫를 띄고 입체감이 많은 도안인데, 여기서는 陽刻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25) 『續漢書』 輿服志 下에는 進賢冠은 앞이 높고 뒤가 낮은 관으로 文儒者들이 썼는데 신분이 높을수록 가운데 세운 梁의 수가 많았다고 한다. 『續漢書』 輿服志 下, p.3666. 최덕경, 「畵像石에 나타난 漢代 華北人의 衣食住生活相」(『釜大史學』 21, 1997), p.91 참조.

26)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美術全集(18):畵像石畵像磚』(中國人民美術出版社, 2000), p.77. 四川省 大邑安仁鄕 출토 화상석 참조.

27) 漢初부터 유가들이 그들 나름의 관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史記』 卷97, 酈生陸賈列傳, p.2691, "騎士曰 : 「沛公不好儒, 諸客冠儒冠來者, 沛公輒解其冠, 溲溺其中。與人言, 常大罵。未可以儒生說也」.

있다. 다음 화상석은 의례적인 면보다 놀이적인 성격이 강하게 투영된 내용들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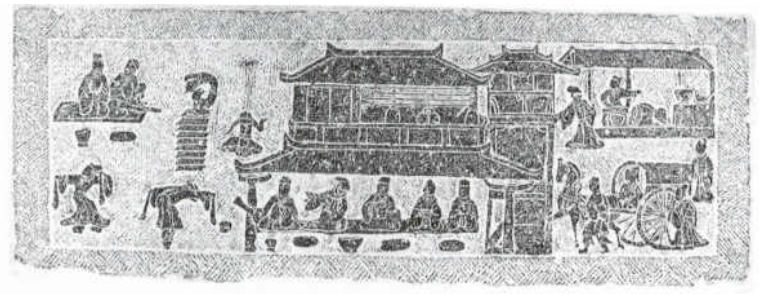

그림 3

이 화상석은 四川省에서 출토된 것이며 시기는 後漢 시대이다.[28] 전체적으로 가로로 넓은 화면에 주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중앙에는 두 개의 건물이 있고 큰 건물 안에 지켜보는 사람 앞에 5명의 사람이 앉아 있다. 이들 앞에 술과 음식이 놓여 있다. 왼쪽 건물에는 여자가 있고 그 옆에는 주방이다. 마차를 타고 오는 사람은 여인이며 마차를 시복하는 사람과 끄는 사람이 있다. 왼편으로 연희를 하는 사람들이 네 명인데, 왼쪽 위의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묘기를 펼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며 나머지는 춤을 추고 있다. 주목할 것은 5명 앞에 놓인 그릇 중에서 술항아리로 보이는 것은 둥글고 긴 그릇으로 두 개라는 것이다. 물론 그릇을 옆으로 쭉 늘어놓은 데다(옆으로 긴 장방형은 음식 그릇으로 보이지만) 자세하게 내용물을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즐거운 술자리에서도 자리를 순서대로 앉아 있

28) 『中國畵像石全集』 7(中國畵像石全集編輯委員會 編, 山東美術出版社, 2000), p.39. 도판 122-124 참조. 1947년 四川省 郫縣新勝鄉竹瓦鋪 出土.

으며 춤추는 사람들의 의복과 마차를 모는 사람의 의복에서 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받는 사람의 冠에서 유가적 색채를 엿볼 수는 있다.[29]

같은 곳에서 출토된 角抵水嬉圖에서 뱀이나 호랑이를 흉내내는 東海黃公[30] 연희를 하면서도 의례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시립한 사람들이나 그들이 공경한 자세로 서있는 모습을 볼 때, 설령 음주 향락을 계속 이어가는 장면이기는 하여도[31] 어떤 격식을 지키고 있음을 짐작할 수는 있다. 물론 술자리가 이어지게 되면 의례적인 모습이 그대로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술이 관련된 의례를 기록한 화상 자료에서도 일정한 격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密縣打虎亭의 연음화상석에서도 가운데 자리를 차지한 주인에게 한 손을 무릎에 두고 한 손으로 잔을 들어 주인에게 공손히 보내는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32] 다음으로 山東에서 출토된 後漢의 화상석을 살펴보자.

---

29) 당시 화상석에는 신분의 차이에 따라 복식과 관을 달리 하고 있다. 최덕경, 「畵像石에 나타난 漢代 華北人의 衣食住 生活相」(『釜大史學』 21, 1997), pp.81-84 참조.

30) 東海黃公은 웅크린 상태로 뱀이나 호랑이 모양을 하면서 노는 놀이인데, 여기에는 일종의 주술적인 의미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본다. 『西京雜記』(四部叢刊本) 卷 3, p.9. "有東海人黃公, 少時爲術, 能制龍御虎, 佩赤金刀, 以絳繒束髮, 立興雲霧, 坐成山河".

31) 『中國畵像石全集』 7, p.40. 도판 125-126 참조. 1947년 鄒縣一號墓 石棺의 畵像石, 漫衍角抵水嬉圖.

32) 『中國畵像石全集』 6, 도판 102 참조. 1961년 河南 密縣打虎亭 1號墓出土.



그림 4

이것은 山東에서 출토된 것[33]으로 髡鉗의 형벌을 실제로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인데,[34] 특이한 점은 당시 술의 의례와 함께 나와 있다는 것이다. 이 그림 외에 아래에 분석할 上計圖와 講學圖[35]도 같이 출토되어서 당시 묘주가 살아 있을 때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제일 위에 앉아서 진현관을 착용하면서 다섯 개의 음식을 담은 상을 앞에 둔 사람들과 좌측에 시립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른쪽에 앉아서 음식을 세 상 앞에 둔 사람들이 髡鉗의 처치를 받는 포로들을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우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악공들과 각종 연희를 벌이는

33) 任日新, 「山東諸成漢墓畵像石」, 『文物』 1981-10.

34) 일반 백성들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羌族 포로를 처치하는 정경으로 볼 수 있다. 王恩田, 「諸城凉台孫琮畵像石墓考」(『文物』 1985-3), p.95 참조.

35) 강학으로 보기도 하고 상계로 보기도 한다. 信立祥(김용성 譯), 『한대 화상석의 세계』(학연문화사, 2005), p.300에서는 髡鉗圖, 上計圖, 宴飮上計圖로 이 셋을 구분한다.

모습들이 나와 있다.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24인, 앉은 12인은 掾吏이고, 아래 왼편의 두 사람은 惠文冠을 착용한 것으로 보아 무관, 왼쪽에 서 있는 12인은 '書佐'로 '干主文書'하는 사람들일 것이다.[36] 주목할 것은 음식의 개수가 5개라는 점[37]과, 넓은 판에 다섯 개의 음식을 담은 것이 세 접시, 세 개의 음식을 담은 상이 한 접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음식은 홀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술 항아리에 해당하는 것이 윗면에 두 개가, 오른편에 두 개가 놓여 있으며, 오른편의 술항아리 국자가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술은 짝수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禮記』의 기록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바와 관련된다.

> 술을 마시는 음례는 양기를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이 있고, 음주가 없는 식례는 음기를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이 없다. 대체로 소리는 양인 것이다. ..... 술자리에 진설하는 鼎俎는 홀수이고, 籩豆가 짝수인 것은 음양의 이치이다.

따라서 음식은 홀수로, 술은 짝수로 진열된다는 예서의 내용이[38]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39] 적어도 『儀禮』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계층별로 자리를 잡은 점과 진현관 등 신분에 따른 관의 착용 그리고 격식에 맞게 배치한 음식과 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자.

---

36) 王恩田, 「諸城凉台孫琮畵像石墓考」, pp.94-95.

37) 河南 密縣打虎亭 1號墓에는 하나의 음식상 7개의 음식이 보인다. 짝수로 되지 않고 홀수로 된 것은 당시 사람들의 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8) 『禮記』, 권 25, 郊特牲, pp.483-484, "而食嘗無樂, 飮養陽氣也, 故有樂, 食養陰氣也, 故無聲. 凡聲, 陽也, ..... 鼎俎奇而籩豆偶, 陰陽之義也".

39) 숫자는 언급되지 않으나 술과 음식을 따로 배열하는 것에 대한 유사한 내용을 『國語』 卷 2, 周語中篇, "出其樽彝, 陳其鼎俎"에서 볼 수 있다.

앞서의 논의를 정리한다면 전국 초기의 청동 자료에서 禮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40] 비슷한 구도의 그림을 前漢 시대에 그대로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도리어 後漢 시대에 宴飮을 표현하는 구도 속에 술과 관련된 의례가 격식에 맞는 형태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漢初의 유학이 미약한 상태에서 점차 국가의 중요한 의례와 민간의 생활 속으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본다. 漢初에 보이는 鄕飮大射의 의례도 魯 지역의 유습으로 공자를 따르던 유가들이 노 지역에서 지키고 행해온 지방 의례일 것이고,[41] 儒林列傳에서도 유학이 漢이 들어서고서[42]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널리 확산되었음을 언급한다.[43] 孔子冢에서 유생들이 거행한 의례는 분명 유가적인 의례일 것인데, 齊魯 지역에 국한되든 지역적인 儀禮가[44] 漢代에 들어와서 점점 확산되고 이후 국가의 儀禮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이는 漢代 郡縣의 鄕射祭祀는 모두 士禮를 빌려와서 행하였다는『續漢書』禮儀志의 기록에서 민간인들의 생활에도 유가적 색채가 차츰 스며들어가는 것을 엿볼 수 있다.[45]

---

40) 小南一郎은 戰國 靑銅器에 나오는 射禮와 鄕飮酒禮의 모습이 이후 後漢 화상석에 계승되었다고 보았다.『中國古代禮制硏究』(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1995),「射の儀禮化をめぐって---その二つの段階」, p.47-116. 앞의 邢義田,「漢代畵像石中的'射爵射侯圖'」, p.21 59번 참조. 그는 小南一郎처럼 漢代 '射爵射侯圖'의 연원을 戰國 靑銅器의 문양에서 찾는다.

41)『史記』卷 47, 孔子世家, p.1945.

42) 패공이 유생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고사는 유명하다.『史記』卷 97, 酈生陸賈列傳 참조.

43)『史記』卷 121, 儒林列傳, p.3117.

44) 이 점은 사마천의 경험담에서 시사를 얻을 수 있다.『史記』卷 130, 太史公自序, p.3293, "北涉汶泗, 講業齊魯之都, 觀孔子之遺風, 鄕射鄒嶧."

45)『續漢書』禮儀志-上, p.3109, "服虔・應昭曰, 漢家郡縣饗射祭祀, 皆假士禮而行之. 樂縣笙磬簴俎, 皆如士制".

## 3. 宴飮과 飮酒禮

기층 사회 속으로 儒家의 의례가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46]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과 자료는 제한되어 있으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연음 화상석에 보이는 음주례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음의 모습 속에 주례 혹은 기록 속에 보이는 鄕飮酒禮에 관한 禮書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가? 다음 화상석을 살펴보자.[47]



그림 5

이 화상석도 後漢 시대의 것이다. 四川省에서 출토된 것으로 7명의 음주 장면이 나와 있다. 자리가 세 개 놓여 있고 자리 사이에는 각각 案과 樽을 두었다. 앞서 언급한 打虎亭에서 나온 것처

46) 漢代 지방 학교의 설립과 그 기능의 확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는 시사점이 있다. 遠藤祐子, 「漢代のおける地方官學の政治的機能」(『立命館史學』 14, 1993), 참조.

47) 『中國美術全集(18): 畵像石畵像磚』, p.75. 1972년 四川省 大邑安仁鄕 출토.

럼 한손을 내리고 잔을 올려서 권하는 장면이 윗면에 나온다. 술항아리에는 국자가 있으며 옆에 작은 술그릇이 놓여 있다. 제일 위에 관대를 차고 있는 사람이 주인으로 보는데, 모두 소매가 넓고 긴 옷을 입고 있다. 사람들 앞에 각각 案을 두고 있고 그 크기가 달라서 신분 고하에 따라 자리를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분위기 자체도 근엄하며 동작도 절도 있고 서로 협조하여 호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있다.[48] 이들이 착용하고 있는 冠이 다른 화상석에서 주로 보이는 진현관은 아니며 관 옆으로 길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續漢書』輿服志에 나오는 관들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들이『禮記』에 보이는 深衣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짐작할 있다.[49] 같은 곳에서 출토된 舞樂雜技 화상석을 살펴보자.



그림 6

48)『中國美術全集(18): 畵像石畵像磚』, p.75. 袁曙光 해설 참조.

49)『禮記』, 深衣篇에 따르면 상의와 하의가 일반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나 深衣는 서로 연결된 옷으로 몸을 깊이 감추기 위함이어서 深衣라고 한다.

이 화상석은[50] 앞서 본 분위기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음주와 오락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면을 크게 둘로 나누어 오른편은 연희와 잡기를 벌이는 모습이 나와 있고, 왼편에 위 아래로 나누어 주인과 악공의 모습이 나와 있다. 위에 있는 주인의 옆에는 시중을 드는 여자가 있다. 주목할 것은 두 개의 酒尊이 놓여 있다는 것과 국자의 위치가 같은 곳에 두어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술의 의례에 관한 전부가 화상석에 다 기록되는 것은 아니므로 술 항아리를 굳이 두 개만 두고서 술자리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51] 또한 그렇게 둔 것은 화면의 구성상 두 개로 표시하는 것이 용이해서 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굳이 두 개의 항아리를 표현하고 있는 점은 『儀禮』의 내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점이다. 사천성 成都 昭覺寺 漢墓에서 출토된 후한시대 연락화상석에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인을 향하여 국자를 같은 방향으로 둔 두 개의 酒樽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山東省 沂南縣에서 나온 화상석에는 제사도가 나와 있는데,[52] 네 개의 大缸을 두고 있어도 이 중에서 두 개가 堂 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禮制 관념의 전승에서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잠시 언급한 山東 孫琮墓에서 나온 화상석을 살펴보자. 잔편이 있기는 하여도 예서 속에 여러 의례들로 볼 수 있

---

50) 『中國美術全集(18): 畵像石畵像磚』, p.77. 四川省 大邑安仁鄕 출토.

51) 산동성 諸城凉台에서 孫琮이 병풍을 두르고 앞에 술잔 6개를 두고 그 앞에 한 개의 술항아리를 둔 것이 보이는데, 이는 옆에 있는 6명의 부하들에게 상으로 내리는 것이다. 아마도 순차적으로 그 6인에게 술이 내려졌을 것인데, 실제 살아서 일한 곳에서 拜賀와 賜酒가 그대로 재현된 것으로 보인다. 林巳奈夫, 『石に刻まれた世界;畵像石が語る古代中國の生活と思想』(東方書店, 1992), p.145 참조.

52) 『中國畵像石全集』 권6, p.60. 도판 186 참조. 沂南漢墓前室 東壁 화상석으로 1954년 山東省 沂南縣 北寨村 출토.

는 장면들이 한 화면 속에 나오며 음주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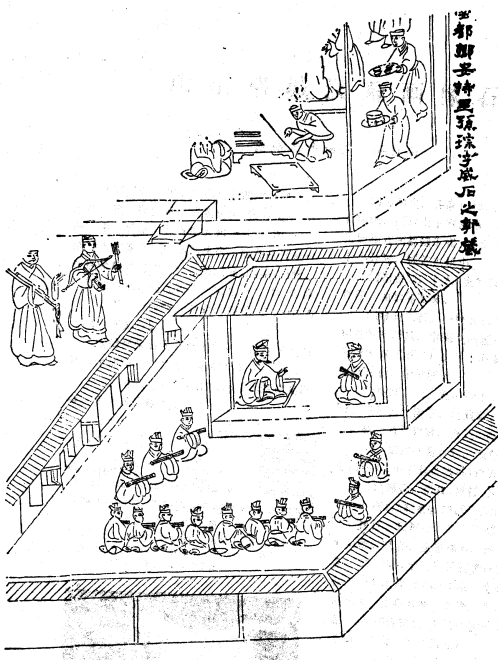

그림 7

이 화상석은 윗면이 일분 잘려져 있다. 내용 구성상 화면은 셋으로 나누어진다. 음식을 들고 오는 사람들과 六博으로 보이는 기구가 윗면에[53], 중간 왼편에는 활을 든 사람과 문서나 간책을 든 사람, 그리고 우하에 사합원의 구조와 그 속에 여러 사람들이 고하에 따라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 장면은 1) 같은 공간 내에서 일어난 사

53) 사천성 新津 출토 화상석에서 六博하는 선인 옆에 국자와 술항아리가 보인다. 林巳奈夫, 앞의 책, p.183 참조. 육박판 위의 긴 작대기도 보임에 주목하자.

건들을 시간에 상관없이 표현하거나 2) 순차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3) 같은 목표와 의도 속에 일어난 일들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 묘주인 孫琮이 지주이자 관료이면서 또한 유학자인 것을 고려한다[54]면 1)과 3)의 가능성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육박을 하면서 즐겁게 논 다음 여러 의례를 실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六博이 단순히 오락으로서의 기록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주술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다[55] 射禮나 강학 혹은 상계가 끝난 다음 당위에서 일어난 연회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漢書』 朱買臣傳의 기록에 따라 사합원 속의 인물들은 上計[56]를 하는 것으로 보고 상계 시에 設宴群飮이 있었다고 하지만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배울 때 순서대로 앉아 있다는 『漢書』의 기록[57]과 다른 화상석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인데, 四川省 靑杠坡에서 출토된 講學 화상석[58]은 거의 위와 유사한 내용을 보이기 있다. 왼편에 선생이 자리 위에 앉아 있고 손을 들어 이야기를 할 때 나머지 제자들이 손에 간책을 들고 순서에 따라 빙 둘러 앉았는데 그 크기도 순차적으로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南陽에서 출토된 화상석[59]에는 선생이 오른쪽에 있으나 제자

54) 信立祥(김용성 譯), 『한대 화상석의 세계』, p.300 참조.

55) 이는 尹灣漢簡에서 찾아볼 수 있다. 曾藍莹, 「尹灣漢墓『博局占』木牘試解」(『文物』 1999-8) 참조. 또한 반상의 유희이지만 여기에 제사적 성격이 있음을 지적하는데, 仙人들이 육박을 행하는 모습으로 화상석에서 표현되기도 한다. 渡部武, 『中國の古代畵像が語る』, p.227과 248 참조.

56) 信立傷, 앞의 책, p.75. 묘주인 孫琮은 높고 큰 전장의 중앙에 병풍을 두르고 작은 부하들이 서 있는 모습은 상계의 모습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묘주가 우월한 위치에서 음주를 위한 儀禮를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57) 『漢書』 卷 56, 董仲舒傳, p.2495, "下帷講誦, 弟子傳以久次相授業, 或莫見其面".

58) 『中國美術全集』, p.80.

59) 『中國畵像石全集』 권 6, p.56. 南陽宛城區에서 출토.

들이 왼편에 앉은 모습과 그 외의 모습들은 그대로 일치하고 있어서 강학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굳이 강학의 모습을 그리면서도 그 옆에 사례와 관련된 모습을 함께 둔 것은 왜일까? 군사적인 성격의 射禮[60]도 유가적인 강학 구도 속에서 표현되고 있음을 주목되는데, 이것은 당시 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과 강학이 분명히 일정정도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태사공자서의 기록이나『漢書』韓延壽傳의 기록[61] 및『漢書」五行志의 기록[62]에서 전한시대에 이미 鄕射를 봄과 가을에 실시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고, 또 이를 간독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63] 당연히 후한 시대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친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당시의 향음주례는 강제성을 띤 儀禮이거나 의무적인 성격을 띤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64], 이때의 鄕射가 예서 속의 향음주례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군서적인 성격의 사례에 음악연주와 읍양의 과정이 들어 있음은 분명하며 아마도 鄕射의 의례에 술과 관련된 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射禮는 일종의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만 차츰 의례적인 제도의 하나로 굳어졌을 것이다. 秋射는 武帝 太初 연간에는 이미 그 형식이 완비된 제도로

---

60) 射禮를 군사적인 의미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平岡武天,「史と書」,『經書の成立』, 創文社, 1983). pp.238-241). 그러나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鄕射禮의 군사교련적인 면에 대해서는 楊寬,「'射禮'新探」, p.300.

61)『漢書』卷 76, 韓延壽傳, p.3211, "春秋鄕射, 陳鍾鼓管弦, 盛升降揖讓, 及都試講武, 設斧鉞旌旗, 習射御之事", p.3210. '鄕射'의 '射'를 '社'로 보기도 하는데, '射御'라는 뒤의 말에 따라 王先謙의 주장에 따른다.

62)『漢書』卷 27, 五行志, p.1417, "鴻嘉二年三月, 博士行大射禮, 有飛雉集于庭, 歷階登堂而雊".

63) 陳戍國,『秦漢禮制研究』(湖南敎育出版社, 1993), p.241.『巨延漢簡甲乙編』(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編, 中華書局, 1980), "隊長常以令秋射發矢十二以六爲程過六賜勞矢十五日(270.23); 五鳳二年九月庚辰朔己酉甲渠候漢强敢言之府書曰候長士吏蓬隊長以令秋射暑功勞長吏雜試□□(6.5)".

64)『漢書』卷 67, 梅福傳, p.2920.

보기도 하는데,[65] 『隸石』에는 후한 시대 지방 학교엔 鄕校에서 鄕射를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66] 그렇다면 秋射가 끝난 이후에 공과에 따라 주연이 베풀어졌을 가능성은 높고 이때의 의례 과정 속에 예서 속의 의례 과정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漢代의 화상석 가운데 연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儀禮』 등 예서에서 음주의 의례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출토유물과 비교하였다. 전국시대에는 예서의 내용이 그대로 투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한 시대의 화상석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구조와 구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부분도 존재하였다. 예제에 맞는 모습은 전한보다 후한 시대에서 더 확인할 수 있었다. 후한 시대의 화상석에는 주로 진현관을 착용하고 주례를 벌이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주례를 거행하는 사람들이 길고 소매가 넓은 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또한 격식에 따른 음식물의 배치에 관한 예서의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 것도 살펴보았다. 음식을 홀수로, 술을 짝수로 배열한다는 의식이 일정 정도 후한의 화상석에 반영되고 있었으며, 지위와 고하에 따른 자리 배열과 기물의 배치를 통해 儒家的 禮制의 편린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射禮가 강학과 더불어 한 화면 속에 재현되는 것도 살필 수 있었으며, 이는 지방 관청 단계에서 유가적 의례가 군사적 성격에도 투영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이해하였다. 후한의 화상석은 지역별로는 四川, 山東, 河南 등 여러 곳[67]에서 출토

65) 薛英群, 『居延漢簡通論』(甘肅敎育出版社, 1991), 「秋射與署」, p.294.
66) 『隸釋』 卷 5, 「漂陽長潘乾校官碑」 참조.
67) 화상 자료의 지방별 분류로는 邢義田, 「漢代壁畵的發展和壁畵墓」, 부록 참조.

된 것으로 각 지역에서 유사한 구도의 재현을 통해 예제가 후한 이후 지방으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전한보다 후한 시대에 예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음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는 鄕飮大射와 같은 한초의 유가 의례가 魯 지역에만 머물러 있다가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과 관련된다.

필자가 본 화상석에 대하여 漢代 사람들이 분할된 공간에 따로 다른 이야기를 그려놓은 것도 하나의 논리로 이해가능하다면,[68] 하나의 공간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풀어놓은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례와 사례의 공간에 강학의 요소가 들어간 것은 당시의 관념 속에 그것이 하나로 통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례와 연례가 하나의 논리로 이해되는 코드로서 유가적 이념의 색채가 짙은 강학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배경에는 그것이 가능한 당신 사람들의 망딸리테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향음 주례의 의미가 기원과 계통을 달리하여 전승되어 온 것이 예서 속에 자리 잡았다가 다시 이것이 실제의 공간에 펼쳐질 때 하나의 화면 구성 속에 온전히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거나 적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심리적 태도를 전제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후한 이후 유가적 색채의 의례가 상호 다른 의례 속에 점차 자리잡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편린으로 이 자료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본고에서 지방의 예제화 수용과 확산에 대한 시론적 접근만을 제시하였을 뿐 鄕飮大射와 같은 漢初의 지방의례가 국가의 의례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면상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

68) 金秉駿, 「漢代 畵像石의 '橋上交戰圖' 분석」, 참조.

# 참고문헌

<기본 자료>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編,『中國美術全集(18): 畵像石畵像磚』, 中國人民美術出版社, 2000
中國畵像石全集編輯委員會 編,『中國畵像石全集』, 山東美術出版社, 2000

<논문 >

金秉駿,「漢代 畵像石의 '橋上交戰圖' 분석 - 畵題간의 상호 유기적 이해를 위한 시론」,『강좌미술사』26, 2006.
渡部武,『中國の古代畵像が語る』, 平凡社, 1991.
姚偉鈞,「鄕飮酒禮探微」,『中國史硏究』1991-1.
小南一郎,「飮酒禮と棵禮」,『中國禮制と禮學』, 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硏究報告, 朋友書店, 2001.
柳肅,『禮의 정신』(洪熹 역), 동문선, 1994.
李發林,『漢畵考釋和硏究』,『中國文聯出版社』, 2000.
이수덕,「牛酒賜與를 통해 본 漢代의 國家와 社會」,『中國史硏究』13, 2001.
_____,「鄕飮酒禮의 起源과 形成」,『대구사학』84, 2006.
彭林,『周禮』主體思想與成書年代硏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
許明華,「漢代 畵像石에 반영된 祭祀藝術樣式」,『中國史硏究』65, 2010.
邢義田,「漢代壁畵的發展和壁畵墓」,『歷史語言硏究所集刊』57-1, 1986.
_____,「漢代畵像石中的'射爵射侯圖'」,『歷史語言硏究所集刊』71-1, 2000.
W. Fairbank, "The Offering shrines of Wu Liang Tz'u",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6, 1941.

# Ritual in Huaxiangshi during Han Empire

Lee, Soo-Duck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nts of Ritual Book and Huaxiangshi(畫像石). Under one condition that the ceremony of confucious is not rooted in early Han Empire, this study discerns the meaning of Huaxiangshi with contents of Banquet. Especially it is not difficult for this study to find the confucious ritual in Ritual Book, not Former Han, but Later Han. This results mean that the ritual of confucious gradually spreads into Han Empire. Though a little bit difference is identified, entire region of Han is converted slowly into Li Zhi(禮制) State. It is appeared during Later Han. We can find evidence from the tomb of Son Cong(孫琮). In this tomb Huaxiangshi, Military ritual and Scholar ritual is combined into one category.

Key words: Huaxiangshi, Ritual Book, The tomb of Son Cong, Li Zhi, The confucious ritual

이수덕
소속: 동아대학교 사학과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좌3동 주공2차 A 202-2005
전화번호: 010-2669-5473
전자우편: zapegay@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3월 8일 투고하여
2012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4월 30일 간행함